

부원료구등난심각 특히 단백질사료

조 흥 래

〈한국사료협회 기획부장〉

비되기 때문에 어분의 재고량이 거의 없는데다가 호마박 임자박 등이 품절되고 있다. 다행이도 7월 중순부터는 채종박이 생산개시되므로 다소 완화될 전망도 없지 않으나 이와 같은 추세로 사료가 소비된다면 하반기 어느 시기에 가서는 대두박 이외에도 다른 박류사료의 수입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년말에는 단백질사료 파동을 면치 못하게 될 것이다. 또한 물량면에서 뿐만 아니라 가격면에서도 적지 않는 문제점이 야기되고 있다. 즉 당국에서는 배합사료가격을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4/15선 가격을 계속 유지하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산란계초기사료, 씨돼지사료 그리고 착유 1호사료는 경제기획원 장관의 사전 협의대상품목으로 지정하고 기타 사료는 사료조절단체인 농협중앙회와 한국사료협회가 4/15가격선을 유지하는 범위내에서 자율규제도록 방침을 세워 시달하였다. 그리고 배합사료가격을 조정하는 근거는 주원료인 옥수수, 소맥피 대두박가격의 변동이 있을 때에 한하도록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부원료가격의 양등으로 배합사료의 원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하더라도 가격조정의 사유가 되지 못한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물가안정이란 대전체 앞에서는 다소의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기업인은 참아 주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절실한 현실이라는 것을 재인식하여 기업가나 양축가가 다 같이 협력하여 경제발전에 이바지 하지 않으면 안 되리라 느껴진다.

2. 배합사료 생산현황

1~5월까지 배합사료생산실적을 보면 <표 1>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전년 동기간 대비 전체적으로 38.7%가 증가하고 있으나 그 중

1. 요약

배합사료 수요가 급증하여 4월에는 10.5만톤 5월에는 11만톤이 생산될 결과 배합사료 원료가격이 옥수수 대두박 소백피 등 주종품목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품귀하여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 또한 국제곡물시세도 4월 이후 소련의 대량구매와 이상천후 예측으로 5월부터 폭등하여 계속 강세를 유지하고 있다. 다행이도 당국에서 사료용 옥수수의 도입물량 증가책정과 구매촉구로 1차로 9월 충순까지 사용할 물량이 구매되었으며 대두박의 공급이 원활한 실정에 있어 다소의 원가상승요인은 있으나 양계용 배합사료는 비교적 원활히 공급되고 있다. 양계용 배합사료의 생산량을 보면 육추용사료가 전년 5월대비 98.4%가 증산되고 성계용사료가 57.2% 육계용사료가 93.1%나 증가하고 있어 양계용 사료가 전체적으로 70.8%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4월의 78.9%에 비하면 다소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으나 1~5월까지의 증가율이 50.9%에 달하고 있어 일부 양계가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양계용 배합사료의 일부 타가축사료들의 전용 양을 고려한다 하여도 지나친 증가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원료공급면에서 볼 때 주원료보다는 강류 박류 풀분 등 부원료의 수급사정이 극도로 악화되고 있다. 그 주요원인은 국내 생산증가율이 사료수요증가율에 비하여 현저히 낮을 뿐만 아니라 외환사정과 국산화라는 명제 때문에 이와 같은 부원료의 수입이 극도로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현재 시기적으로 어분이 다량 생산되는 계절이면서도 사료수요의 급격한 증가로 말미암아 어분이 생산되는 대로 저량 소

에서도 양계용 배합사료의 증가율이 가장 현저하여 50.9%에 달하고 있으며 양계용사료의 증가추세를 세분해 보면 육추용사료가 76.9% 육계용사료가 58.6%, 성계용사료가 46.6%의 순으로 증가되고 있으며 양돈사료가 9.6%, 낙농사료가 4.9%의 순으로서 탁에 비하여 비교적 증가율이 적지만 농축사료가 지난해보다 5.5배나 증가하여 양돈 및 축우사료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소, 돼지사료의 증가율도 무시하지 못하는 실정이나 양계용사료의 월별 생산량을 전년 동월과 대비하여 보면 육추용사료가 1월에 60.4%, 2월에 24.0%, 3월에 39.2%, 4월에 84.0%, 5월에 98.4%로 월별이 진행됨에 따라 급격한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5월에는 거의 생산량이 배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며 성계용사료에 있어서도 증가율이 육추용사료에는 이르지 못한다 하더라도 1월의 47.2%, 2월에 14.1%, 3월에 50.0%, 4월에 35.4%, 5월에 57.2%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밖에 육계용사료를 보면 1월의 39.2%, 2월에 8.4%, 3월에 36.5% 4월에 105.6%, 5월에 93.1%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양계용사료가 전체적으로 2월의 14.1%에서 시작하여 3월에 46.1%,

4월에 78.9%, 5월에 70.8%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배합사료생산량 증가는 이것이 곧 축산물생산량의 증가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축산물가격으로 그 결과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비록 축산물의 수요가 대폭 증가하고 있다고는 하나 이와 같은 추세로 배합사료수요가 증가한다면 사료원료 공급면에서도 적지 않는 문제점이 생기는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축산물가격의 하락현상은 필연적으로 면치 못하게 될 것이다. 특히 육계용사료가 3월의 8.8천톤에서 4월에는 12.9천톤으로 그리고 5월에는 약 1.5만톤으로 급격한 증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6월 이후 육계시세가 폭락하여 사실상 생산비조차 보장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뼈저리게 실감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안정적 축산경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리가 없는 합리적 가축사양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

3. 사료곡물의 국제시세

미국 시카고 곡물거래소의 선물거래시세를 기준한 사료곡물의 국제시세를 한국 도착기준

〈표 1〉

배합사료 생산 실적(1~5월)

(단위 : 톤)

월 분	구 분				양 계 용	양돈용	낙농용	비육우용	농 기 축 타	계
	육추용	성계용	육계용	소 계						
'75. 1	6,924	26,268	4,515	37,717	12,217	13,241	3,416	1,029	67,620	
	2,261	31,424	5,811	44,496	12,137	11,987	3,423	705	72,748	
	7,019	28,495	6,452	41,966	11,330	14,449	2,933	1,092	71,770	
	6,449	25,456	6,298	38,123	10,954	11,193	1,958	695	63,013	
	7,570	28,074	7,704	43,348	11,972	11,940	2,137	1,071	70,468	
소 계	35,243	139,717	30,780	205,740	58,610	62,810	13,867	4,592	345,619	
'76. 1	(60.4)	(47.2)	(39.2)	(48.7)	(8.3)	(19.3)	(△1.1)	(19.1)	(32.7)	
	11,119	38,664	6,286	56,069	18,227	15,793	3,378	1,225	89,692	
	(24.0)	(14.1)	(8.4)	(14.9)	(△11.5)	(△1.8)	(105)	(161.0)	(8.0)	
	9,002	35,844	6,297	51,143	10,742	11,770	3,064	1,840	78,559	
	(39.2)	(50.0)	(36.5)	(46.1)	(18.4)	(△7.5)	(16.9)	(310.7)	(33.8)	
(추 정 치)	9,772	42,730	8,808	61,310	13,414	13,360	3,429	4,485	95,998	
	(84.0)	(35.4)	(105.6)	(78.9)	(23.2)	(15.8)	(25.9)	(9,790)	(66.3)	
	11,887	43,535	12,947	68,371	13,490	12,964	2,465	7,499	104,789	
	(98.4)	(57.2)	(93.1)	(70.8)	(11.4)	(1.1)	(△53.3)	(119.7)	(56.8)	
	15,022	44,120	14,880	74,022	13,337	12,072	997	10,087	110,515	
소 계	56,706	204,867	48,819	310,392	64,218	65,859	13,333	25,500	479,302	
증가율 %	75.9	46.6	58.6	50.9	9.6	4.9	△3.9	455.3	38.7	

으로 환산하여 소개드리면 <표 2>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1월부터 4월까지는 비교적 안정된 추세를 유지하였기 때문에 현재까지 우리 나라에서도 \$125~128선에 옥수수를 구매하여 유리한 가격으로 사용할 수가 있었고 상당액의 사료가격 안정기금도 적립할 수가 있었으나 4월 중순에 소련이 미국산 곡물을 다량 구매하였고 또한 금년도 미국의 기상 조건이 좋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으로 말미아마 미국의 농민들이 재고 양곡의 판매를 거려하고 있기 때문에 곡물시세가 상승하기 시작하여 7월선적 옥수수 가격은 톤당 \$141 이상을 호가하고 있으며 9월선적 분이 \$134, 신곡수확 후인 12월에 \$134을 호가하고 있으며 대두박의 경우도 4월까지 톤당 \$192~194에 거래되었던 것이 6/17현재 7월선적에 \$257월선적에 9월선적에 \$253을 12월선적에 \$272을 호가하고 있으며 소맥의 경우를 보면 현재 수확 중에 있기 때문에 가격이 비교적 안정된 추세를 보이고 있다. 즉 7월선적에 \$153, 9월선적에 \$157, 12월선적에 \$161에 거래되고 있다. 이와 같은 국제사료곡물시세는 앞으로 옥수수 생육시기의 기상조건에 따라 크게 변동을 갖어올 수 있는 것이며 또한 사료곡물의 수출국인 미국의 기상 이외에도 대량 수요국가인 서구나 소련 등지의 기상도 국제곡물시세를 좌우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상학자들에 의하면 금년의 일기가 농업생산에 나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측되는 정조들이 도처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함으로 생육시기를 맞이하여 좋은 일기와 적당한 강우로 곡물시세의 안정이 이루어질 것을 바란다.

4. 국내 사료시세

국내의 주요단미사료시세를 보면 <표 3>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6/15일 현재 시세를 전년 동일자 시세와 대비하여 보면 옥수수와 대두박시세가 하락하였을 뿐 임박 19.4%, 호마박 19.4%, 채종박 32.4%, 옥수수배아박 35.5%, 옥수수구르테 13.5%, 탈지강 71.2% 소맥피 126.2%, 어분상품 25.5%, 어분 중품

<표 2> 사료곡물 및 소맥의 국제시세

단위 : \$/C&F톤

	옥수수			대두박			소맥		
	7	9	12	7	9	12	7	9	12
1/13	132	—	—	—	—	—	156	—	—
2/12	131	—	—	194	—	—	166	—	—
3/10	—	—	—	193	—	—	162	—	—
4/13	126	124	—	192	195	—	151	154	—
5/14	134	131	—	213	213	—	153	156	—
5/20	135	132	—	220	220	—	155	159	—
5/27	141	131	128	234	233	233	155	158	162
6/2	141	133	129	238	237	234	159	164	168
6/10	145	138	137	243	241	242	158	163	166
6/14	143	137	136	265	262	261	156	159	164
6/15	142	135	134	258	254	251	153	155	160
6/17	141	136	134	257	253	272	153	157	161

7.8%, 끌분 61.5% 등 가격양등율이 최하 7.8%에서 최고 126.2%까지 폭등하고 있으며 이를 종별로 보면 강피류사료가격이 가장 많이 뛰고 있으며 그 다음이 끌분 등 인공급제 가격이며 식물성 박류가격이 비교적 적게 양등하고 있다. 옥수수와 대두박가격이 하락한 원인은 1975년산 미국의 사료곡물과 대두의 풍작으로 국제곡물시세가 금년도에 들어와 매우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6/15현재 시세를 전월 15일 시세와 대비하여 보면 옥수수와 대두박이 계속 가격변동이 없는 반면 탈지강이 10.3%, 어분상품이 9.3% 끌분이 5.4%가 각각 양등되고 있으며 이밖에 임박, 호마박, 채종박 등 식물성박류 가격이 1.1%에서 3.2%까지 양등세를 보이고 있으나 사실상 물량면에서 품절되고 있기 때문에 구하기조차 어려운 실정에 있다. 특히 한 가지 유의하여야 할 점이 있다면 배합사료용 강피류 배정량이 감소하여 강피류 배정량이만으로는 부족하고 또한 옥수수 수입량도 그다지 여유가 없어 수급되고 있으므로 사실상 배합할 원료가 부족하기 때문에 가격을 절하시키거나 품질을 저하시키는 특적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배합사료공장마저 kg당 75원짜리 탈지강을 구하지 않을 수 없는 한국적 현실을 무엇이라 표현했으면 좋을른지 모르겠다. 오늘 날 우리의 사료적인 측면에서의 여건은 보편적인 원리가 그대로 통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

이 아닌가 생각된다. 즉 탈지강 등 강파류가 격은 아무리 좋게 평가해 준다하여도 옥수수의 66~70% 이상은 평가해 주지 못할 것이다. 그런데도 사료에 대한 가장 풍부한 지식과 응용능력을 가지고 있는 배합사료공장마저도 수입 옥수수시세와 마찬가지 비싼 값으로 원료를 구매하지 않을 수 없는 한국적 사료수급사정이 무엇인가 모순속에서 불합리성이 발견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루 속히 수급의 정상화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5. 원료 수급사정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배합사료의 수요

〈표 3〉 주요 단미사료시세

단위: 원/kg

종류	서울 지방 도매시세			1976. 6. 15 대비 %	
	75 5. 15	76 5. 15	76 6. 15	75 6. 15	76 5. 15
옥수수(도입)	96.53	76	76	△21.3	0
" (국산)	94.15	101.45	-	-	-
대두박	127	116.50	116.50	△8.3	0
임마박	81.80	94.50	97.65	194	3.2
호마박	81.23	94.50	97	19.4	2.6
채종박	68	89	90	32.4	1.1
옥수수 배아박	52.75	69.50	71.50	35.5	29
" 구르텐	115	127.50	130.50	13.5	2.4
맥강	45	-	-	-	-
탈지강	43.80	68	75	7.12	103
소맥피	20.34	46	46	126.2	0
어분상품	147.60	169.50	185.25	25.5	93
" 종품	125.75	134	135.50	7.8	1.1
풀분	78.33	120	126.50	61.5	5.4
인산칼슘(15%)	-	162.50	165	-	15

〈표 4〉

사료용 옥수수 도착 예정

단위: M/T

도착	선적수량	단가 C&F(\$)	사용 추정 시기
예정일 입항지			
'76. 6. 26仁川	22,000	127.41	7월(경인 중부, 호남, 대구)
6. 27釜山	19,264	124.60	7월(부산)
7. 3 인천	38,090	128.04	7월(경인 중부, 호남, 대구)
7. 27 인천	45,500	135.76	8월(경인 중부, 호남, 대구)
8. 10 부산/인천	38,608	135.67	8월(부산, 대구)
8. 25 부산	20,000	136.12	9월(경인 중부, 호남) 9월(경인)

주 1) 월간 소요 추정량: 6.7월: 65,000M/T 内外

8.9월: 60,000M/T 内外

증가가 현저히 이루어지고 있는 현시점에서의 주요원료의 수급사정을 살펴보면 사료용 옥수수 수요량을 당초에는 48만톤으로 책정하였으나 수요증가를 감안하여 도입량을 56만톤으로 8만톤을 늘리고 이월량 12만톤을 합하여 68만톤을 공급할 계획이다. 그러나 금년도 옥수수 실수요량은 63~65만톤에 달하기 때문에 이월물량의 감소는 있을지언정 옥수수 수급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 분명하다. 단 필요한 물량을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국내에 도착시키는 문제와 어떻게 하면 값싸게 구매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만 남아 있다. 현재 구매한 옥수수의 도착예정을 보면 〈표 4〉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6/26에 인천에 2.2만톤, 6/27 부산에 1.9만톤, 7/3 인천에 3.8만톤, 7/27 인천에 4.6만톤, 8/10 부산, 인천에 3.9만톤 그리고 8/25 부산에 2만톤이 각각 도착 예정으로 있으며 6.7월 수요추정량을 월간 6.5만톤 8.9월 수요추정량을 월간 6만톤으로 가정할 경우 적어도 8월 중순까지는 공급이 가능하다. 대략 구매단가는 7/3 이전 도착분이 \$128 이하이었으나 7/27 이후 도착분은 \$135 이상이며 앞으로 구매할 옥수수도 \$135 이하에서의 원료구매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된다. 대두박(대두수입)은 당초 3.1만톤을 수입할 계획이었으나 수요량 증가를 감안하여 7.3만톤으로 증량시켰기 때문에 이월물량 1.3만톤을 고려한다면 그다지 부족하지 않겠으나 어분이나 기타 식물성박류의 공급사정 여하에 따라 수요량의 변동이 생길 것이다.

이밖에 소맥피는 월간 원맥이 계속 13만톤

이상이 가공될 전망으로 있으나 배합사료용으로 현재 양계사료에 14% 쇠돼지사료에 35% 밖에 배정해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강피류가 약간 부족하여 사료생산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현재 소, 돼지사료는 수요량의 1/2은 배합사료를 그리고 1/2은 동축사료를 생산 판매하고 있으므로 양돈가나 낙농가는 농축사료구매를 기피할 것이 아니라, 전업규모양축가는 농축사료를 합리적으로 이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겠다.

6. 배합사료가격 전망

배합사료가격은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경제기획원장관의 사전 협의대상품목으로 지정되었다. 따라서 배합사료의 주중품목인 산란초기사료 씨돼지사료 및 착유 1호사료는 사전협의 품목에 해당되므로 kg당 공장도가격은 산란초기 86.03원 씨돼지 73.01원 착유 1호 69.45원이 되고 이 가격선 이내에서 판매하여야 한다. 그리고 기타 품목은 협의대상품목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사료조절단체의 자율규제품목으로 운용하되 첫째, 주중원료인 옥수수, 소맥피, 대두박의 가격변동이 없는한 배합사료가격 인상은 원칙적으로 고려하지 않으며, 둘째 사료원료의 가격이 현저히 인상되어 가격인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최소한으로 조정함은 물론 동원료가격을 장기적으로 분석하여 하락될 전망이 있는 경우에는 사료가격의 인상을 보류하는 등 배합사료가격의 안정적 유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세째, 사료조절단체는 정부의 물가안정시책에 적극 협력하여 자율규제품목의 적정가격을 산정하여 이를 초과하는 업체가 없도록 강력히 종용하며, 네째 사료가격안정에 창의적 대책을 강구하여 가격규제를 이유로 판매기피 생산기피 또는 품질저하 등의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 대책을 강구하도록 지시가 있었다.

따라서 앞으로 옥수수, 소맥피, 대두박 등 3개품목의 가격변동이 없는한 배합사료가격은 4/15수준에서 계속 거래가 이루어지리라 전망된다.

협성가축약품공사

◎ 가축예방약

◎ 치료제

◎ 소독약

◎ 사료첨가제

◎ 기타국내외약품

총판

상담수의사 : 연 두희

★ 가축질병상담

★ 지방주문환영

TEL 주간 97-8779
야간 96-9231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654

청량리 오스카극장 앞,
한일은행 청량리지점 옆

